하윤의 이불 끝에는

먼 눈언덕부터 잘 자



글·그림 올레길



“엄마, 불 끄면 무서워.” 하윤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. 엄마가 속삭였어요. “눈을 감으면 펭귄이 눈나라로 데려다줄 거야. 엄마는 문밖에 있을게.”



하윤이는 하늘색 이불을 쥐고 눈을 꼭 감았어요. 그러자 이불 끝이 스르르 펼쳐지더니, 하얀 눈나라가 되었어요. 펭귄이 뒤뚱뒤뚱 앞장섰지요.



눈나라에는 포근한 눈 동굴이 있었어요.
“여기가 내 잠자리야.” 펭귄이 말했어요.
하윤이는 이불을 무릎에 덮고 동굴에 쏙
들어가 앉았어요.



밖은 캄캄했지만, 달님이 환하게 비춰 주었어요. 하윤이는 먼 눈언덕을 향해 인사했어요. “눈언덕아, 잘 자아아.” 무서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.



“펭귄아, 너는 혼자 자도 안 무서워?” “응, 눈을 감으면 달님이 지켜 주거든.”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“그럼 나도 해 볼래.”



하윤이는 눈 동굴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덮었어요. 포근포근, 따뜻했어요. “잘 자, 펭귄아.” 하윤이가 작게 말했어요.



눈을 떠 보니 하윤이는 제 침대에 있었어요.
품에는 펭귄 인형이 꼭 안겨 있었지요.
문틈으로 엄마가 살짝 들여다보았어요.



하윤이는 혼자서도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.
이불 끝에는 오늘 밤도 눈나라가 기다리고
있을 거예요. 잘 자, 하윤아.

끝

따뜻한 동화책 한 권이 완성되었어요.

하윤의 이불 끝에는

글·그림 올레길

© 2026 올레길 · Storypia